

7년간의 연구를 논문 단 4편으로 평가?

글 | 류창국 _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조교수 cryu@me.skku.ac.kr

얼마 전 KBS 9시뉴스에서 BK 사업과 관련하여 영터리 국제학술대회와 부실한 실적 평가를 몇 꼭지에 걸쳐 보도하였다. 발표자 대다수가 한국인인 학술대회에 BK 과제 예산을 써서 참가하여 발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끝프와 관광을 하고, 여기에서 발표한 논문이 버젓이 국제학술대회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번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내각으로 진출한 교수들 중 논문의 중복계재나 이런저런 표절 논란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터라 일반 대중의 학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참이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한 두 사람이 한 일도 아니고 공식적인 학회의 주관 하에 수백 명이 참여하는 학회였다는 점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뉴스에서도 함께 보도되었고 이미 학계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터이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른 데에는 연구성과의 양적인 결과에만 의존하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평가 체계에 있다.

30명 연구 참여해도 평가별 보고서는 15쪽 이내

한국에 오기 전 연구원으로 있었던 영국에서 대학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평가와 연구평가이다. 연구평가는 1996년, 2001년에 이어 올해 다시 시작되어 2009년 초에 결과가 발표된다. 평상시에 축구도 따로 정책도 따로

집행하던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대학 평가에서는 각 구성체의 고등교육지원협의회가 모여 사이 좋게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평가단위(연구분야)별로 각 대학의 우수등급이 5개로 나뉘어져 예비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에게 모두 공개되어 대학의 명성을 결정한다. 또한 총 10조 원이 넘는 고등교육예산이 교육과 연구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대학들이 사활을 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이번 연구 평가의 대상 기간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7년 동안이므로 한국 같으면 실적물 준비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지만 각 교수들은 단지 고르고 고른 네 편만의 대표적인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 연구의 질을 직접 평가받게 된다.

제출하는 연구실적에는 물론 저널 논문이 주를 이루지만 학술발표 논문, 책, 소프트웨어, 특허, 개발한 장비와 설계 작품 등도 가능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널의 랭킹이나 인용지수는 모두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 연구실적들에 대해 각 연구단위별로 구성된 10여 명의 서브패널과 큰 그룹별 메인패널이 질적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게 된다. 이미 2005년에 출판된 평가가이드에 따르면 연구 수준은 지식의 앞선 정도, 독자성과 창의성, 이론·기술·응용에의 기여, 학계·산업계의 수요와 영향 등을 평가단위와 연구실적물의 특성에 맞게 가중치를 주어 평가하게 되어 있다.

연구 실적물의 평가결과는 전체 평가점수의 50%를 차지하며, 30%는 연구비 규모 등 연구활동, 나머지 20%는 박사과정 배출수



우리도 연구의 질적 수준 따지는 평가방식 필요

어디서나 시스템의 문제점은 있게 마련이어서 영국의 대학들 역시 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연구평가를 앞두고 스카우트하는 편법을 쓰거나 실적이 부진한 교수나 그룹, 아니면 아예 학과 전체를 통째로 들어내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질적 수준이 그만큼 중요시되고 뛰어난 교수가 더 대접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같이 실적의 양을 늘리기 위해 무늬만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학자들의 윤리의식 수준에서 가능하지도 않다.

개인이든 국가든 연구 성과의 양적인 축적 속에서 뛰어난 성과들이 나오는 법이고, BK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원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양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 나온 SCI 논문의 수가 세계 14위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제는 연구의 양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중요한 척도로서 우리 여건에 적합하게 마련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무늬만 학술대회, 논문 쪼개기, 이름 끼워넣기 같은 부끄러운 일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또한 제대로 읽히지 않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적을 엮고 문장을 만들며 두께 늘리느라 보내는 아까운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함께 필요한 것은 온정주의나 '기브 앤 테이크' 대신 동료의 성과에 대해 꼼꼼히 평가해주는 것을 교육·연구 활동의 신성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또 동료들에 의한 평가 결과를 자신의 명예로서 받아들이는 인식이다. **ST**

와 같은 연구 환경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합하게 된다.

손쉬운 지표에 의존하지 않는 질적인 평가의 방식과 함께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의 두께이다. 영국에서 평가대상자는 제출한 연구실적물에 대해 왜 이것을 선택했고 어떻게 우수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겨우 100단어 이내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연구활동과 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각 교수들이 제출하는 요약문 역시 그 길이가 300 단어로 제한된다. 평가단위별 보고서도 참여 교수 수에 따라 단어수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30명이면 6천600 단어이므로 10~15쪽 정도이다. 몇 문장 되지 않을 요약문에 자신의 연구활동과 성과의 우수성을 최대한으로 부각시켜야 하니 '골든 워드'로 부르면서 다듬고 또 다듬는다. 이쯤되면 평가하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신중을 기하게 된다. 필자가 올해 초 한국에서 임용이 되자마자 '과연 이게 읽힐까?'라는 회의가 들면서도 BK 연차보고서와 공학 교육인증 보고서를 수백쪽으로 작성하는데 다른 교수님들과 엄청나게 시간을 들였던 것을 생각하면 '비교체험 극과 극'이다. 특히 BK 보고서를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텍스트로만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다른 대학들도 한다는 '정보'에 문자를 이용해 표와 그림을 그려 추가하는 것에 '80년대 PC 통신 시절도 아니고...'하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말 부각시켜야 할 중요한 성과들은 다른 수많은 정보들에 압도되어 숨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평가시스템이 친절하게 계산해주는 몇몇 손쉬운 정량적 지표와 보고서의 두께이다.



글쓴이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영국 셰필드 대학 화학공학과 연구원을 거쳤다.